



❁ 프리프레스장비 공급업체

CTF도입 줄고 CTP는 증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가 위축되면서 프리프레스 장비 보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CTF 보급률은 예상대로 낮아졌지만 CTP 보급률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신규 수요 및 대체로 인해 전지 사이즈의 필름 출력기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지난해(150여대)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각 업체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및 추가 도입, 또는 대체를 위해 지난해 수요가 많았던 전지 사이즈의 필름출력기는 도입 대수의 증가와 함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올해 도입한 회사들은 신규 도입보다는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올해 CTF 도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은 경기가 저조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신규 수요가 없는 것과 CTP의 도입도 약간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CTF 공급업체들의 큰 특징은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와 성도GL(후지필름) 등 일본계 장비 공급업체들이 선전한 반면 그 외의 공급업체들은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다이니폰과 후지필름의 CTF 보급률은 전체의 35%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월 말 현재 이미 50%가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전체적인 부진 속에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진 외국에서는 도입률이 상당히 높은 CTP는 지난해(30여대)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CTP의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CTF 공급 업체들은 국내 경기의 저조가 CTF 도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30여대가 공급되면서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월 말 현재 30대 가까이 도입은 되었으나 2개월간 얼마나 더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는 특히 IGAS 이후에 그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업체들이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였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올해는 아그파가 국민일보에 CTP 장비를 공급해 신문사들의 CTF 도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시스템테크놀로지에서도 신문사용 CTF를 공급하게 돼 앞으로 이 분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TF 장비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하이텔베르그는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이텔베르그는 IGAS 이후 영업력을 강화해 보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는 알티즌은 앞으로 좀 더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장비를 보급할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보급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호 부장〉